

Ted Hildebrandt 박사, 구약의 역사, 문학 및 신학, 강의 9

© 2020, Dr. Ted Hildebrandt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강의 9강에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아게다 또는 이삭의 결속과 야곱 이야기의 시작에 관한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입니다.

A. 퀴즈 미리보기 [0:00-1:20]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작업하게 되는데 민수기의 일부 장만 다루게 됩니다. 민수기는 큰 책인데 초반부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부 족보를 건너뛰고 선택된 주요 구절만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과 기억구절 인지는 알 수 없는 글이 있을 겁니다 . 그건 다음주 목요일이고 그 다음 목요일에 첫 번째 시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퀴즈와 다릅니다 . 시험은 우리가 강의와 암기 구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억 구절을 잊지 마세요. 강의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살펴보고 싶다면 오래된 학습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주 목요일 다음주가 될 것입니다.

B. 아브라함: 그녀는 내 여동생이에요 [1:21-6:32]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여러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룰 것이며 희망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와 야곱과 이삭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싶습니다 . 오늘 다루는 내용 중 일부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2장과 20장에 나옵니다. 그는 두 번이나 “그녀는 내 여동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정말 아름답고 75세인데 그 당시에는 달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왕은 그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살려주세요” 라는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 12장에서는 바로가 나오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의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 이 “너는 내 여동생이야” 루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좀 흥미롭네요. 이삭이 리브가에게 똑같은 일을 한 것을 모두가 기억합니까(26 장)?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세 번 일어납니다. 다들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라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속이려고 한 걸까요? 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모두가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근동의 관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문화적 문제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 구절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관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Gordon Hugenberger 박사는 창세기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창세기에 관한 48개의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Park Street Church의 Gordon Hugenberger 박사는 아마도 내가 들어본 설교자 중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해요. 그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비멜렉과 바로가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생각해 내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보호자가 필요했습니까? 현대에도 여성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일어난 일은 그녀가 혼자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혼자 보고 와서 그녀를 '자매'로 입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가 와서 보호자 형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녀가 결혼하면 보호자 형제가 지참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는 결혼하고, 그는 돈을 얻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는 내 누이라” 고 말한 것입니다.

왕은 “좋아, 이 사람은 아마 그녀를 시집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녀를 내 하렘으로 데려가고 이 사람에게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는가? 이제 나는 사라가 한 일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문화에서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일일 것입니다. 그녀가 하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 그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꽤 괜찮은 여동생이 있군요 친구.”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라를 보호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입니까? 그녀가 파라오나 아비멜렉과 장난을 쳤다면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삭을 통해 나올 혈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그녀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자매를 입양하고 보호한 다음 그녀와 결혼하는 관습입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그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성에게 보호자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자가 남자만큼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는데 내가 가져갈 때와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훌륭한 기계공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글썄요, 그런 메커니즘을 너무 많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C. 천사의 방문: 환대의 법칙 [6:33-13:03]

18장에는 아브람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세 사람이 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조금 작업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 “아브라함이 마므레 큰 나무 곁에서 그 날 더울 때에 그 장막 어귀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근처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문에서 서둘러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사람들을 자기 천막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또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텐트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환대의 법칙”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대의 법칙은 사막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는 베두인족 환경에서 3박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것은 베두인 텐트였고 베두인 낙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타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남자는 나가서 이 작은 류트를 연주했고 베두인 동료는 약 3시간 동안 낙타 농담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낙타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타를 탈 기회가 생긴다면 말의 폭은 이 정도이고, 낙타의 폭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탈 때 태권도를 꽤 많이 했는데, 이 낙타를 타려고 하면 이렇게 너무 커서 쪼개지고 싶은 안 쪼개지든 45분 동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릴 때 남자들이 활다리로 걷고 있는 카우보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45분 만에 낙타에서 내렸을 때 다리를 쭉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낙타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베두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낙타를 타면 무릎을 꿇고 꼬리 끝을 위로 밀기 때문에 이것을 타면 날아갈 것처럼 앞으로 던지고 앞쪽이 튀어 나오면 일어나라. 그런데 낙타를 타면 거기에도 낙타가 있나요? 당신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전에도 본 적이 있어서 앞으로 흔들렸다가 뒤로 흔들렸습니다. 글썄요, 제게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글썄요, 그 사람은 실제로 친구는 아니었지만, 남침례교 소년이었고 키는 6'4 정도였고 몸무게는 약 350 파운드였습니다. 그는 큰 소년이었습니다. 글썄요, 이 낙타들에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덩치 큰 남침례교 소년이 이 낙타 뒤에 올라타고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가 올라가면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낙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이 낙타는 옆으로 굴러가서 이 친구를 바로 굴린 다음 똑바로 일어섭니다. 낙타는 마치 “이런 등에 비해 넌 너무 크잖아!”라고 말하는 듯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굴렸고 우리는 그것으로 큰 웃음을 얻었습니다.

베두인족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이러한 환대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베두인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천막 문에 나타난 당신의 치명적인 적이군요. 사막에서는 환대의 법칙이 엄중합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 사람이 죽는데, 설령 숙적이더라도 사흘 동안은 먹여살려야 한다.” 이제 당신이 하는 일은 그에게 3 일 동안 먹이를 주고 가두어 둔 다음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환대의 법칙을 3일 동안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막에 있을 때 당신은 환대의 법칙을 준수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사막에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은 공동체를 낳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은 전투 중 가장 높은 고도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 10,000~11,000피트 상공에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해군 봉인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탈레반에 둘러싸여 물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탈레반이 기본적으로 그들 중 3명을 죽였고 그들 중 한 명은 총에 맞아 북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마을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그들을 족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랍 용어입니다. 파슈툰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은 그들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나는 파슈툰어를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마을의 장로들에게 왔고, 이 사람은 총에 맞아 기어 올라오고 장로가 그를 만나러 와서 그가 마을에 있고 장로의 승인을 받아 그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을 합니다. 그를 보호해야 해? 그것은 그들의 법률의 일부입니다. 탈레반은 그를 쫓아 마을로 가서 “저기 미국인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탈레반과 싸워 마을의 절반을 파괴했을까요? 예, 그랬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러한 환대 법칙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나요? 네, 그랬어요. 마지막 수업의 학생은 실제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꽤 심하게 총에 맞아 북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책 이름은 '*The Lone Survivor*' 입니다. 내 요점은, 아프가니스탄의 법이 아직도 성경 시대처럼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현대 법칙에 관해 그들은 여전히 매우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랍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발을 씻어 주었고,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는 무엇을 하나요? 그녀는 웃기 때문에 나중에 아들의 이름을 “웃음” 또는 “웃음” 을 의미하는 이삭이라고 명명합니다.

D. 소돔과 롯 [13:04-13:44]

세 사람이 거기 있고 사해를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아, 우리는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를 피우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아래 소돔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 그의 아이들과 조카들과 함께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으로 내려가 그 도시를 폭파할 예정이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이 일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 상호 작용하는 하나님과의 물물교환 [13:45-17:53]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일이 그같이 악한지 보리라” 고 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부르짖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돔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잠깐만요. 거기 내려가서 그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아래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려버리시겠습니까? 거기에 의인 오십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 문화에서는 물건을

물물교환합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 있을 때, 그들은 즉시 “오, 미국에서 온 친구여, 오늘 당신을 위한 특별 가격이군요, 친구”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가격, 즉 “당신만을 위한 특별 가격”을 알려줍니다. 그 남자랑 물물교환을 하시나요? 당신은 이 사람을 반값으로 물물교환하고 거기서 나가면서 “아, 내가 그 사람을 반값으로 줄였어, 거래를 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 사람 잡았어요” 라고 말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물물교환합니다. 나한테도 남자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예를 들어 내 아내가 낙타를 타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아내가 낙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리를 살짝 잡아주는 것 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제안을 했는데 제 아내에게 낙타 3마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그에게 “아니요, 적어도 5마리는 원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자들이 나에게 딸을 팔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솔직한 진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딸을 팔려고 했지만 그것은 단지 문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굴러야합니다. 나는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고 1년 동안 살았으며 베두인족과 함께 약 3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곳곳에서 물물교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는데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 의인을 멸하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나는 50명의 의인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 45세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물물교환을 하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10명을 위해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걱정을 해결해 주실까요? 예,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걱정을 해결하고 여전히 도시에 담배를 피울까요? 예, 그래서 그는 그를 10으로 줄였습니다.

나는 단지 아브라함과 이 천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진짜 상호작용인가요?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고 단지 아브라함과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이러한 신성한 존재들과 상호 작용하는 실제 인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지력이

당신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썄요,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은 그가 항상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 맥락에서 주어진 인간 사이의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를 10으로 물물교환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제 상호 작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 의인화적 언어와 의인화적 언어? [17:54-21:19]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의인화 된 언어입니까? 이제 의인화란 무엇입니까? *인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여기 그리스 학생들이 있나요? *Anthropos*는 “사람, 인간, 인류”라는 뜻입니다. *Anthropos*는 인류이고 “형태”는 무엇입니까? 형태가 변합니다. *의인화*란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묘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리가 있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느냐? 출애굽기를 읽을 때 주님의 손, 그분의 강하신 손, 편 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의 눈, 입, 얼굴을 말할 때 인간의 신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의인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에 관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인류병리학 은 다릅니다. *인류*는 인류입니다. 다시 볼 수 있지만 의인화된 형태 대신에 인류병적 입니다 .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과 파토스로 묘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구약성경을 충분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걸 보셨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제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나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과 동정심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의인화란 그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얼굴처럼 인간의 육체적 형태로 묘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orph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Anthropopathic은 사랑, 연민, 분노와 같은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주는 것을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멸하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훌륭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맥락에서 이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은 인류학적 묘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묘사될 뿐이라고 제안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시며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묘사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것이 실재하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류와 상호작용을 하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G. 인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21:20-22:13]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과 *하마스*를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땅에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제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에 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는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좋은 나쁜든, 분노든 사랑이든, 친절이든 뭐든 간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이 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은 일종의 놀라운 일입니다.

H.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강간 [22:14-42:35]

이제 다음은 좀 더 어려울 테니 여기서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19장에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니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절하며 땅에 엎드리어 이르되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가시어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길을 가소서. ’ 아닙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롯은 그들이 광장에서 밤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롯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밀어붙이고 그들이 자기 집까지 함께 갈 정도로 강권했다고 합니다. 그는 광장 에 밖에 머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그래서 그들이 그의 집에 오면 그는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흥미롭게도 누룩 없이 빵을 굽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각지에서 온 남자가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들어온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세요.”

여기서는 킹제임스성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것들을 꺼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가 자기 아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완곡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Eu”는 좋은 뜻이고 “pheme”은 그리스어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완곡어법은 실제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좋은 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실제로 NIV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물론 여기서 실제로 문제는 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불친절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소돔의 죄가 바로 이 불친절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준 것은 이 구절에 대한 명쾌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대와 관련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구절을 읽을 때 환대를 생각하셨나요? 당신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친절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게 기본적으로

동성애 강간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음, 여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들어온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롯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남자와 한 번도 자 본 적이 없는 두 딸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그냥 움츠러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소녀, 이 사람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냥 이 늑대들을 위해 내보낼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 지붕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 가족보다 손님을 보호해야 하였습니까? 그것은 관습의 일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꽤 큰 흥미로운 반응 입니다 .

그래서 그는 “당신은 내 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 그게 문제인가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는 딸을 보호합니까? 당신은 내 딸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와서 내 딸들에게 당신과 결혼해 달라고 청하려면, 와서 그 노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말을 걸면 노인은 의자에 앉고 당신은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 노인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믿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정도 크기의 작은 것이 앉아 있고, 그 위에 작은 “짜증나는” 것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요점은 당신이 제 딸들에 대해 물어보면 비언어적 설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걸까요? 내 딸을 건드리면 나도 건드리는 건가요? 예! 12게이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심으로 당신이 내 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딸 둘 다 결혼했고 둘 다 훌륭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나은 일이었습니다. 매개변수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딸들을 밖에 내놓는다는 개념인데, 그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이러한 환대법이 될 것이며 그는 손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 남자들과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보다 자기 딸들을 범하는 것이 죄가 덜할 것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단지 내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성애 강간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천사들과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영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동성애 행위는 죄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환경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오늘날의 학교 환경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 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 후에는 미국에서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려는 말을 동성애 행위가 죄라고 한다면, 영국이라고 하면 그것은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보통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던데, 지금은 여기 자리잡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까? 음,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명확한 진술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동성애 강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명의 동성애 연인이 아닙니다. 다른 구절로 넘어가는 경우. 레위기 18:22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꽤 명확합니까?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다음 구절은 “동물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 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짐승을 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일부 국가가 있으며 우리 군대는 상당히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접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구절 중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그들은 이 구절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상당히 명확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놓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향 나선형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시고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선형으로 내려가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 때문에 그들의 여자들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와의 관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느니라.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다.” 이제 꽤 명확해졌나요?

정말 분명한 또 다른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란한 죄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고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죄입니까? 우상 숭배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간음도, 남창도, 동성애자도 하지 말라.” 고린도에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범죄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 꽤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이 동성애 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저는 여기로 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와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일부는 인디애나에 있는 매우 보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곤 했는데, 그곳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그녀를 Susie라고 부르겠습니다. Susie는 그녀의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12살 때 야구 코치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녀가 16살이었을 때 그녀의 삼촌은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그녀를 폭행했고, 그녀의 삼촌은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말할 수 없는 다른 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내 사무실에서 나가서 콘크리트 블록 벽을 힘껏 치고 손가락 관절을 거의 부러뜨렸습니다. 그녀는 터프한 소녀였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실제로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 사람은 집에 갈 수 없었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나는 그곳에 가서 그녀를 방문했는데 약 6인치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비명을 지른다. 나는 그녀를 아주 잘 알았고 그녀가 곧 이 남자를 터뜨리고 그의 얼굴을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하고 그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싫어했나요? 네, 그 사람은 남자를 싫어해서 그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 집에 와서 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제 아들은 해병대에서 집으로 왔는데 이 사실을 몰랐고 제가 생각하기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를 기억하시나요? 수지는 레즈비언이었으므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와서 내가 콘크리트 벽을 쌓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블록을 쌓았는데 우리는 벽돌로 그것을 직면했고 그녀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콘크리트 작업을 했는데,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나에겐 이 규칙이 있다: 진짜 남자는 장갑을 끼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 아내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하루가 지나면 콘크리트 때문에 손이 건조해집니다. 콘크리트 작업 둘째 날부터 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에는 상처가 벌어지고 손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제 Susie가 전화를 걸어 "에이즈 검사를 받으러 포트웨인으로 가야 해요"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에이즈에 걸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거래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녀는 이 시험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죠. 거기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차를 몰고 30번 국도를 따라 운전해서 컬럼비아 시티에 오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포트웨인의 중간쯤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 하느님, 내 손에 이런 열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일에서 울면서 나오더니 그 사람도 나한테 울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네 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머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퍼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나 자신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는 정말 속상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리가 사소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나에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밖으로 나와서 울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안아주시고 그녀가 그를 위해 울도록 허락하실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험을 마치고 나왔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저에게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약 2~3주 후에 그녀는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녀만큼 행복했다.

그녀는 이런 일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결론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바꿔 보겠습니다. 제 처남을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찰리는 나보다 몇 살 위이므로 4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 아름다운 30,000달러짜리 트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처남은 술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럭을 전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차를 손상시켰습니다. 정부가 그를 쫓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약 200,000마일을 주행한 맥시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 맥시밴에 싣고 우리 집으로 운전합니다. 그는 회복하는 동안 약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질문: 우리는 찰리를 사랑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찰리 삼촌을 사랑하나요? 예. 질문: 나는 알코올 중독을 싫어합니까?

나는 수업 시간에 이것을 자주 말했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바로 거기 서 있고, 내가 바로 당신

앞에서 그것을 죽이면 모든 사람의 알코올 중독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성의 표면을 맨손으로 바로 당신 앞에서 죽일 것입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알코올 중독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나는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묘지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음주 운전. 어쨌든, 그만하자. 알았어, 싫어. 나는 그것을 죽일 것이다.

. 질문: 나는 처남을 사랑합니까? 나는 약 두 달 전에 위스콘신에서 그를 만났어요.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질문: 나는 알코올 중독이 저지른 일을 싫어합니까? 예. 그렇다면 “게이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같은 종류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솔직한 사실은, 그레이스가 떠날 때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할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자를 싫어하나요? 예. 그녀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남자는 딱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내 동생이고 다른 한 명은 당신이예요.” 나는 이것이 20여 년 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예.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 중 가장 좋은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그곳을 떠났을 때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나요 ? 그게 당신이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이제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형부님, 평생 술과 씨름하시게 될까요? 실제로 그를 죽이는 것은 담배입니다. 하지만 내 말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나이가 들면 따라 잡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규모의 학급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방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게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경계를 넘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까? 이제 그 말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그 대답은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고 말합니다. 가끔 여기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을 미워하라” 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영리한 친구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을 알고 있으며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은 마약에 연루됐고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정말 밝은 아이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이가 튜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나요 ? 질문: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해 죽었을까요? 예.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은, 그 아이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고 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마약이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일하는지 맞춰보세요? 그는 요양소에서 일하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그래서 내 일은 균형입니다. 어떻게 정확히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나요? 예 . 당신은 “글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뿐입니다 ” 라고 말합니다. 네, 잠시 동안 시도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과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가자. 사실 이게 내 결론이고 말장난해서 미안하지만 결론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죄인을 사랑하기만 하고 죄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에만 의지하고 사람을 미워한다면 거기서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하려면 꽤 까다로운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아케다: 이삭을 결속함 [42:36-54:05]

이제 이 본문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오시며,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 나는 당신에게 아들을 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내가 이 땅, 이 약속의 땅을 네게 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온 세계, 모든 나라, 곧 땅과 씨와 축복을 받게 하리라.” 그분은 그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늙어갈 때까지, 거의 100세가 되거나 이 아이를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2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역할을 맡으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그를 시험할 것입니다. 22장 그럼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려가라’ 고 말씀하셨다.” 그는 약속의 아들, 기다리던 자, 사라와 낳은 특별한 아들 이삭입니다. 웃음 .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그 아이는 이제 아마 16살쯤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에게 애착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지방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당신은 “글쎄, 우리는 번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막 시작했다고요?” 네, 번제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보통 번제물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대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여기서 물러날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한 번제물이면 모든 것이 다 태워질 것입니다. 넌 튀겨졌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내가 너에게 일러 줄 산 중 한 곳”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머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다리던, 사랑했던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다음 구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텍스트가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나귀에 안장을 엮었습니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3 일 동안 말을 타고 가려면 당나귀에 안장을 엮어야 합니다. 당나귀를 탈 예정이므로 안장을 씌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당나귀에 안장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인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불을 위한 모든 나무를 운반해야 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를 도와주는 두 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그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나무를 충분히 베었을 때” 아, 예, 희생을 치르려면 그곳에서 태울 나무가 필요하므로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려면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니라.”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당나귀에 안장을 엮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감정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질문: 그렇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자가 작동하고 있나요? 당나귀에게 안장을 엮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나귀에 안장을 엮었는지 관심이 있나요? 그는 나무를 잘랐다. 그가 나무를 자르든 말든 신경쓰나요? 그가 하인 두 명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모든 관련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당신을 문자 속으로 초대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이런 종류의 미친
 것들을 나열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모든 공간을 제공 하고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제공할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독자. 그것은 독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관련
 없는 것들을 말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하여 “이런 소녀,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도록, 이 모든 관련 없는
 세부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함으로써 그것은 초대입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라고 하시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당나귀들과 함께 여기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약성서에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꽤 좋은 일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나요? 아브라함이 나무와 번제물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삭이 나타나서 이삭이 몇 마디 말을 하려 합니다.

“아케다” 라고 불립니다 .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유명한 구절이며 “아케다(Akedah)” 라고 불립니다. 아케다(Akedah)는 “이삭을 묶은 것” 을 가리킨다. ‘아케다’ 는 ‘묶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삭을 결박한 것” 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본문의 바인딩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속사포처럼 감정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좋은 문학이라는 것이다. 이 좋은 문학은 당신을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은 서사의 감정, 긴장, 파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고통스러운 순종과 당신이 얻은 것, 여기서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합시다. 아이작의 나이는 16세쯤 되는 것 보이시죠?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아버지는 백 살이고 아이는 열여섯 살이죠?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아빠, 엄마가 말하는 걸 잊으셨나요? 아빠 여기서 잊으신 게 있나요 ? 장작과 불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빠, 그런데 양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너한테 양을 가져오라고 상기시키는 걸 잊었니 ?”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 “아버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아빠, 잊으신 게 있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메아리가 들리나요? 2천년의 메아리입니다. “내 아들이,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어린 양은 그의 아들입니다. 여기 침례교인이 있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보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인가? 이제 그것은 많은 것을 불러옵니다.

여기 철학자 계시나요? 철학자들은 아마도 나보다 사물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렌 키에르케고르(Soren Kierkegaar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 솔직히 말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감상하기 전에 작품을 세 번 읽어야 했지만, 이 책은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심오한 책 중

하나였습니다. *Fear and Trembling* (공포와 떨림) 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0~50페이지 정도의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심오합니다. 1년 전 나는 이 구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 전 지금 제 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부츠”입니다. “부츠”는 기본적으로 그가 해병대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지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M16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보병의 Lance Corporal입니다. 그는 실제로 50 칼로리 기관총을 갖고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매일 밖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전선 밖으로 나가서 총에 맞았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목에 바로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의 주요 동맥은 1mm 정도 놓쳤습니다. 우리는 해들리가 목에 총을 맞고 헬리콥터로 달려가는 동안 자신의 목에 압박감을 가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그는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내 아들의 다른 친구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다지 운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총알이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죠. 다른 친구들은 논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살면서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에서 구약성경 수업을 듣고 구약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8일 동안 매일 총격을 받으며 전선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까지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나요? 나는 아들을 놓아주며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을 돌보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까?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까? 이제 당신은 엘리엇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컷습니다... 그는 지금 6'2" / 6'3" , 220파운드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돌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에게 총을 쏘고 있는데 나는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내 아이가 거기 있는데 나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은 기도합니다. 그게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년에 기도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솔직한 사실은 작년의 많은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금 말했습니다. “
 하나님, 노인이 먼저 가십니다. 아이가 알아야 해요, 늙은이가 먼저
 가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세요. 그 사람은 데려가지 마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제가 갈게요. 나를 데려가세요, 지금 당장 데려가세요.
 저를 구약성서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당신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서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로 다시 데려가셨고 그는 육체적으로
 다치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력감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 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J. 신앙 발달 의 단계 [54:06-61

:23]

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신앙의 여러 단계, 즉 신앙 발달의
 여러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저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방금 구성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쉬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값없이 얻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서 황금빛 거리를 걷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배웁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쉬운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당신은 당신이 얻게 될 것을 위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쉬운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에게서 얻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것이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운 믿음"입니다.

체념의 신앙 "이라고 부르고 싶은 또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Cornell Aeronautics Lab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용하고 싶어했습니다. 5만 달러를 벌어들였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많은 돈이었던 남북 전쟁 이후에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직장 동료에게 “저는 신학교에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 5만 달러를 벌고 부자가 되는 대신 신학교에 가면 즉시 가난해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당신은 정말 가난해졌어요. 자신이 가난해도 좋지만 결혼하면 상대방을 부양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예전처럼 모서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버팔로 시내 등을 하루 25마일씩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전거 뒤에 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차를 구입하여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했지? “내가 그 직업을 쓰레기로 간주하나요?” 체념의 신앙은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비하하거나 축소하고 경시하고 생각하게 하며 그것을 축소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차피 나한테는 안 좋았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낮추고,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빼앗으신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으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을 내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체념의 신앙입니다.

그게 다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앞잡아보며 “아, 그 사람은 어차피 별로 아들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믿음의 다음 단계입니다. 나는 이것을 불합리한 “순수한 믿음”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배” 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한 믿음” 입니다. 너무 함축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귀중한 것' 을 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귀중한 것” 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은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원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귀중한 것” 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기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 아들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포기하고 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평가절하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아들을 원한다.” 정말 파괴적입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성경의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을 놔두다니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지난 학기에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학기 말에 “구약성서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배웠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한다” 고 말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읽은 책을 당신도 읽었나요? 아니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요점을 모두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고 정말 슬펐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나요? 여기서 하나님은 잔인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친구는 당신의 직감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당신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생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당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나요? 좋은 친구가 당신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합니까? 좋은 친구가 슬픔에 빠진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친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이 슬픔에

빠졌을 때 좋은 친구가 조언을 해줄까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조언을 해주는 거죠? 잘못된. 당신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당신과 함께 슬퍼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이 희생을 끝까지 감당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까? 질문: 아브라함은 이제 그 중 일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건 어떤가요? 나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엘리엇이 그에게서 콧물을 뽑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야, 너희 원자 좋아하니? 원자가 우주
 전체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아니면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구에 있는 너희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때리고 있니? 이것을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플릭!” 그리고 갑자기
 지구가 명왕성처럼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즉시 얼어붙어서 밖이
 좀 추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나에게
 말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는
 “플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튀겼어요. 그는 그들이

잔인하고 잔인한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구타하고 학살하도록 허용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말해 줄 뿐입니다. 제가 이 점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인 것 같습니다.

K. 공간적 배가 [61:24-62:52]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신성한 공간에 들어오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친구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북쪽으로 3일 동안 여행하여 모리아라는 산에 이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실까요? 예루살렘. 당신은 이것을 이해합니까? 이것이 제가 "공간적 이중화"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내 딸은 인디애나 주 바르샤바 병원에서 태어났고 나는 아이들 의 출산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16년 후, 제 손자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맹세컨데 그곳은 같은 방이었습니다. 나는 방에 있었고 그녀가 거기에 있었던 때와 내 손자가 거기에 있었던 때로부터 16년 사이에 내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앞뒤로 튀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장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같은 일이 일종의 기시감

처럼 일어나는 것을 “공간 배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정하고 “아브라함, 2000년 후 내 아들이 희생될 바로 그 자리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곳으로 가십시오.”

L. 야곱: 분쟁과 속임수 [62:53-63:55]

그게 끝이에요. 좋아요 , 그럼 제이콥으로 합시다. 실제로 Jacob 은 훨씬 쉽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야곱과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야곱의 다툼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다툼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분쟁과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두 이름을 아시나요? Jacob 이것은 정확히 이것의 뿌리는 아니지만 “기만”이라는 개념처럼 들립니다. 분쟁은 “이스라엘” 이 의미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야곱은 그의 두 이름입니다. 속임수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분쟁. 다툼과 속임수는 야곱의 삶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M. 예정과 자유의지 [63:56-69:44]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Jacob으로 뛰어 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이미지: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서로 밀치자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여호와께 가서 여쭙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느니라. 네 속에서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누가 선택되었느냐?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예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거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예서에게 기회가 있었나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결정론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예정과 자유 의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야곱은 선택받은 자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정, 선택, 확정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중 자유 의지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이 수업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해 왔습니까?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인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예정측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기회를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증오를 일종의 비교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한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덜 사랑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다소간 일종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증오'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상', 즉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는 더 좋은 방법이 아마도 언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한다” 는 뜻입니다. “미워하다” 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미워라는 용어는 언약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쪽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른 쪽과는 언약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논쟁이며, 만약 어떤 사람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까? 에서가 책임이 있었나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이제 에서는 정말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은 택하신 자” 라고 말하고 야곱의 밑에 들어가서 그의 역할을 지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형은 누구입니까? 아론. 그의 누나는 누구입니까? 미리암. 그럼 미리암과 아론은 나이가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지지하기 위해 굴복해야 합니까?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인가요? 민수기 12장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했어야 했나요? 그는 야곱을 지지하기 위해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제 에서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에서가 자기 형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에서가 여전히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공평한가요? 네, 공평해요. 신은 선택한다... 그런데 삶은 공평한가?

내 아들은 특정 수준에서 이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삶은 미국에서 태어나 그의 아버지가 교수가 된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달랐을까요? 그런데, 당신의 삶은 모두 다른가요? 인생은 공평한가? 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정확히 같은 분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모든 것이 삶의 경기장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친 짓입니다. 인생은 공평한가? 아니요, 그냥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형제자매들은 대학에 거의 가지 않았다. 우리는 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대학에 갔어. 우리에게 다른 가족이 있으니 함께 일해야 합니다.

N. 야곱과 에서의 이름과 출생 [69:45-71:45]

자, 이제 두 소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일을 조금 하고 싶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원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는 그의 이름이 ' 발꿈치' 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은 "속이는 자" 처럼 들립니다 . 이름은 "사기꾼"과 "뒤꿈치를 잡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나왔을 때, 에서가 무엇을 다 나왔습니까? 붉고 털이 많은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를 야곱이라는 이 용어 "발꿈치" 의 반향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그 용어는 "속이는 자" 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에서가 나와서 온몸이 붉어졌습니다. 레드 레드 , 사람들은 나를 "레드"라고 불러요. 그의 이름은 "빅 레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서는 "빅 레드(Big Red)" 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사람이 됩니다 . 히브리어로 " dm "은 "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돔은 빨간색과 연관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의 돌들은 어떤 색깔인가요? 페트라를 본 사람이 있나요? 빨간색이에요. 그것은 붉은 누비아 사암이다. 그러므로 그가 와서 거할 곳은 에돔 땅의 붉은 사암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웃기기만 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을 볼 때마다 에서 의 후손인 에돔 족속 은 거의 매번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유대인을 죽일 것이다.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또는 “세르” 라고 불렀습니다. ‘세이르’는 ‘털이 많은’이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Harry (hairy) 또는 Big Red라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름을 “r” 두 개로 표기하여 해리(Harry)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ig Red가 있습니다.

0. 야곱과 에서와 붉은 스투 장자권 [71:46-73:11]

여기 마지막 25장에서 이 이야기를 서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들판의 사람입니다. 제이콥이 스투를 좀 먹었어요. 그런데 스투는 무슨 색이었나요? 빨간 스투. 여기 “빨간색”에 대한 플레이가 있습니까? 빅레드를 위한 레드 스투. 그래서 Big Red가 들어왔고 그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냥을 나갔고 음식이 없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들어왔고 야곱은 이 빨간 스투를 얻었습니다. “야 레드야, 빨간 스투 먹을래?” 레드(에서)는 “나는 굶어죽을 것 같아요. 내 타고난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 물물교환을 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죽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그 죽을 먹지

않으면 죽겠는데 장자권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자권을 교환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Nuzu 법칙 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실제로 우리는 당신의 타고난 권리를 위해 물물교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합법적이라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물물교환하고 당신의 타고난 권리도 물물교환될 수 있습니다. 합법이었다고 해서 좋았다는 뜻인가요? 야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형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에서와 관련된 가장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P. 야곱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함 [73:12-77:7]

이제 이삭의 속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5장 28절에는 정말 불쾌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사나운 사냥감을 좋아하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아이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편애는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형제 경쟁. 그래서 이 형제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부모가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선호하면 아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편애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삭은 늙었어요. 그는 장님입니다. 그는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들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 난 그냥 최고의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요. 그러니 나가서 동물을 쏘고 다시 가져와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하세요. 그러면 네가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에서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트럭으로 나갔고 그는 나가서 이 동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베카가 거기 있어요. 그녀는 모든 일을 우연히 듣습니다. 그녀는 “야, 제이콥, 이제 움직여야 해. 네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인을 이용합니까? 물론. “아빠가 너를 볼 수 없으니 너는 거기로 들어가야 해.”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빠는 당신을 볼 수 없지만 해리는 무엇입니까? 해리는 털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좋아, 염소 한 마리 가져와, 우리가 염소를 요리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나도 이 말을 해야겠다. 팔레스타인의 염소들, 염소 등을 만지면 손에 가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염소털이 어찌나 촘촘하고 촘촘한지, 지구상에 것처럼 굵고 뾰족한 털을 가진 인간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의 뒷면은 아니죠. 정말 지저분한 머리네요. 염소의 밑면과 겨드랑이, 밑면에는 거의 부드러운 가죽처럼 가는 털이 촘촘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옷을 벗고 그에게 입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입혔습니다.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아빠,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야, 그 사람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그를 거기로 부른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야곱과 목과 손을 붙잡습니까? 그리고 그는 “오, 털이 많은 사람이군요. 틀림없이 해리일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분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Jacob이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는 누가 빨리 들어오나요? 에서가 들어와서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버지는 속았으며 긴장감을 갖게 되면 야곱과 에서 사이에 긴장이 생길 것입니다. 축복은 누가 받는가?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축복을 하나만 받았나요?” 이삭은 “내가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속임수와 악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다음 번에는 갈등이 있을 것이고 다음 번에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둘러싸고 벌인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나는 42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아버지의 축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야곱과 에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겠습니다. Numbers 작업을 시작하세요.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강의 9강에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아게다 또는 이삭의 결속과 야곱 이야기의 시작에 관한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입니다.

Elizabeth Alewin 과 Lauren Cain 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2